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진로인식 및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장선화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수료

The Influence of Cultural Program Commitment on Career Perception &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Using Local Children Centers' Service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Moderated by Social Support

Sun-Hwa Jang

Ph. D. Candidate, Jeonju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요 약 본 연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주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N시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다니는 190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 몰입, 진로인식, 진로발달,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PC+ 25.0의 SPSS MACRO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결과 첫째, 문화프로그램 몰입은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인식, 진로발달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며,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주는 영향을 매개하는 자기효능감을 사회적지지가 조절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커지고, 문화프로그램몰입이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 지역아동센터, 문화프로그램 몰입,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인식, 진로발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moderated by social support in the influence of local children's center cultural program commitment on career awareness and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using Local Children Centers' Services.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s of local children's center cultural program commitment, career awareness and development,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was conducted to 19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3rd grade and middle and high school in 22 children's centers in N city. The statistical packages were SPSS PC+ 25.0 and SPSS MACRO.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ultural program commitment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social support, career awareness and career development. Also, self-efficac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career awareness and career development, and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awareness and career development. Second, the hypothesis model was supported that cultural program commitment positively affects career awareness mediated by self-efficacy moderated by social support. In other words, the more they participated and committed in cultural programs, the more self-efficacy increased leading to more career awareness. Also, the more social support was felt, the more the positive influence of cultural program commitment on self-efficacy increased. The hypothesis model was supported that cultural program commitment positively affects career development mediated by self-efficacy moderated by social support. In other words, the more they participated and committed in cultural programs, the more self-efficacy increased leading to more career development. Also, the more social support was felt, the more positive influence of cultural program commitment on self-efficacy increased. The limitation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

Key Words : Local Children Center, cultural program commitment, social support, self-efficacy, career awareness, career development

*Corresponding Author : Sun-Hwa Jang(ilovegod3927@hanmail.net)

Received March 1,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April 1,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1. 서론

우리나라 인구는 출생보다 사망률의 증가로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 대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성인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도한다. 더불어 또래문화를 통하여 경험하고 성장하며 자기 가치관을 확립시켜 나간다. 미래를 위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된 지식을 습득해 가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1]. Super의 발달이론에서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흥미와 욕구를 통해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일과 직업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진로발달은 자녀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사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진로를 인식하는 자기성장까지의 모든 변화를 뜻한다 하였다[2]. 결국 우리나라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인식과 진로발달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목표를 가지로 연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현상의 흐름 때문에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진로탐색의 경험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들로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 돌봄은 감당하기 힘든 일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정신적·신체적 성장 발달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는 우리나라 10대 아동·청소년들의 문제점으로 사망 원인이 1위는 자살로 조사 되었다(통계청, 2016). 이는 아동·청소년 돌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비행 및 강력범죄 비율과 이들의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고, 범죄에 동참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나이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3].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사회 아동·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통합적 사례관리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를 살아가야 할 아동·청소년들에게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논의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복지 기관인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서비스 중에 문화프로그램 제공이 진로인식과 진로발달과의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셋째, 문화프로그램 몰

입의 진로인식과 진로발달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논의 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려운 가정환경의 가정적 기능을 보완하고 생태적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보충 지원과 저출산으로 부족한 다 자녀의 관계를 경험하는 공간이며, 다양한 선·후배관계와 또래집단의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고 포괄적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이용 아동·청소년의 프로그램 선호도는 문화프로그램과 또래관계프로그램, 매일 먹는 급식제공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4]. 이렇듯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이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진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소질과 흥미를 개발하고, 진로발달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성장과정에 필요한 인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들을 통해 정적 영향력이 있으며, 부모의 지지와 관심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환경에 취약한 가정의 자녀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의 변화 과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3].

2019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이용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1. 다음에 해당하는 증명서 확인되는 경우이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차상위계층 확인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자활 증명서 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8)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아동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10)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조손가정인 경우에 한함) 11)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으로 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는 취약계층가정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살핌과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가정의 부모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족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으며 좋은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가정이 많다. 또한 주로 맞벌이 가정으로 자녀들은 방임 될 위험성이 높은 환경이 많다[3]. 일반가정아동에 비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발달문제를 더 경험할 수 있고, 빈곤으로 인하여 필요한 욕구 충족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심리 및 행동발달에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3].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청소년을 일상생활에서 긴장상태로 만들어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환경에 적응할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지속적인 학업성취 및 진로발달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5]. 본 연구를 통하여 평생 수행해야 되는 일과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발달과정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지지를 하는지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필요한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의 중요성을 논의 하고자 한다[2].

2021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사업 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사회와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대해 알아보려하며, 이를 위해서 진로탐색효능감의 개념을 이해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진로탐색효능감 접근을 위해서 자기효능감의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의 변화율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알아 볼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지지에 의해 촉진된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6].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5조~제50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따름(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호(안전한 보호, 일상생활 지도, 급·간식 등), 교육(학습, 특기적성, 성장과 권리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 참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을 하는 아동 복지시설이다.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으로 공부방이 변화되어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였으며 총 895개소를 개소하여 23,347명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시작하여, 2019년에는 일반아동 이용기준을 확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 운영비(3,096백만원)와 공기청정기 지원(809백만원) 및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지원(9,600백만원) 하였고, 2020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시범 사업을 실시(150개소)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이용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달 과정에서 문화프로그램 제공은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에 매개효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1 문화프로그램 몰입의 진로인식 및 진로발달에 관한 이론적 논의

우리나라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험활동 참여를 활용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교육과 함께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연구 효과를 보면 구체적인 오케스트라 활동은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학업성취 등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2021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영역에 문화프로그램은 대분류로 규정하여 필수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연, 연극, 관람, 박물관 견학, 다양한 체험활동과 캠프, 여행, 공연, 전시회, 체육대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문화프로그램은 인생관과 세계관의 형성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격적 성장과 정서적 성숙의 가장 큰 변화를 겪는 형성단계에 영향을 준다[4]. 문화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과 서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제시하고 있다[3]. 문화활동프로그램 몰입은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사회적 관계망 확장에 구체적인 관계가 있으며, 친구관계를 강화하고 문제행동 감소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말하고 있다[7, 8]. 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진로인식과 진로 발달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한다.

맥콤과 스캇 리틀(McComb & Scott-Little)은 방과 후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환경과 발달단계에 따라 질적으로 검증된 교육경험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게 되며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연구 활동을 통하여 문화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성장이 정서적, 사회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Super는 직업과 관련한 경험을 전 생애를 통하여 진로발달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직업(vocation)'에서 '진로(career)'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9]. 아동·청소년 시기 발달단계에 대한 경험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미래의 직업과 관련한 경험을 체험할 환경의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충족하도록 경험시키며 개인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스스로 자기효능감을 높여 진로발달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프로그램이 주어진 영역에서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촉진하고 아동·청소년의 참여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과 발달단계에 맞는 개입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10].

진로인식이란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찾아내고 아동·청소년이 직업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 과정이며 진로선택을 인식하고 다양한 직업에 소양을 쌓아가는 것이라 하였다[11]. 진로계획과 진로결정을 할 때 진로인식은 의사결정과 직업에 대한 종합적 의식체계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진로발달과정과 발달 수준에 맞게 실시되어야 하며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시기를 진로발달단계 중 진로인식 단계로 보았다[12]. Super의 진로인식은 아동·청소년이 진로행동과 연령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대한 평가로 일치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하였다.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체계가 진로인식이며, 아동·청소년의 진로발달과정

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탐색과 자기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정을 통해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는 준비과정이라 하였다[4].

진로교육은 전 생애에 필요한 생애역할, 평생학습, 일과 여가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총체로 진로발달의 개념을 정의하였다[13]. 이는 아동기단계의 진로와 관련해 주요한 영향을 주는 발달과정으로 자기와 직업의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인식, 탐색, 계획과 연계하여 발달과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개인의 진로발달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활동은 진로교육이 지향하는 바이다[11].

Super는 15~24세의 청소년기를 탐색기(exploration stage)로 진로발달에서 중요한 성장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진짜 자기가 되려고 하는 과정',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인 발달과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진로인식과 진로발달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2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 진로결정을 하는 자기효능감에 매우 긍정적이다.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예측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하였다[6]. 선행연구에서 취약계층가정 아동·청소년은 진로발달 체험활동에 자원이 제한적이다. 또한 부족한 정서적, 재정적 지원은 진로 장벽을 만들고 진로인식을 극복하는데 어려운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부모, 교사, 또래와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자기가 지각하는 진로발달 수준이 높았고, 진로발달은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평가적 지지가 서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14]. 이는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서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볼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목표를 향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수행해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의 신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다[15]. 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서의 높은 효능감은 아동·청소년들이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데 실패의 두려움을 감소시킨다[16].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여 일탈행동에 빠지기 쉽고, 청소년기 우울 및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17-19]. 이어 자기효능감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취경험과 대리경험, 언어의 습득정도와 생리적인 상태에 따라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문화프로그램의 몰입의 정도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으며 성취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5].

선행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만족도 순서는 체육활동, 방학캠프활동, 체험학습활동, 미술활동 순이며, 선호하지 않은 프로그램 순서는 숙제지도활동, 한자교실활동, 학습지도활동, 영어교실활동 순이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중에 특기적성, 문화, 체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은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및 전체 이용 아동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4]. 이는 지역아동센터 문화프로그램의 활동들이 아동·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도 관계가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동기부여에 소극적이고 과제를 수행할 때 장애를 경험할 수 있으며 우울함 때문에 힘들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들이 문화프로그램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과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 문화프로그램 활동에 몰입하여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20]. 또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의 정적경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들이 문화프로그램의 몰입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자기효능감이 미래에 직업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사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Maslow의 기본적 욕구에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다음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욕구라 하였다. 즉 개인이 사회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광의의 개념은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을 의미하고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가치를 느끼고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라 하였다[21]. 사

회적 욕구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존재로 인식 할 때 정적의미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지각은 친구의 지지가 가장 높고 교사의 지지가 가장 낮다. 그러나 가족지지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가족은 아동·청소년의 미래의 삶에서 전 생애를 통하여 행동들의 결정요인 역할을 하고,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방향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22]. 한편 미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진로를 찾고 진로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발달과업을 아동·청소년기에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았다[20].

선행연구들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은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사회적지지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서로 다른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신뢰, 정보, 물질적 도움, 자기보고 등의 대인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 보고하고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문화프로그램 활동들을 통하여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요인으로 살펴보고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적지지로 조절된 자기효능감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N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22개소의 초등학교 3학년 이상 151명(79.5%), 중·고등학생 39명(20.5%) 총 190명(남: 77명, 여: 113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6학년 남학생 58명, 여학생 93명으로 총 151명(79.5%), 중학생 남학생 15명, 여학생 17명 총 32명(16.8%), 고등학생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총 7명(3.7%)이었다. 전체 평균 형제수는 2.6명(1-8명) 이었다. 본 조사는 1월 27일 배포 후 본 연구자가 각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부모와 본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설문지에 한 해 본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N시의 23개 센터 중 22개 센터에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응답을 받았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190부를 분석에 사용했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측정도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진로인식 및 진로발달의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여 보고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사회적지지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에 역할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어떠한 효과성이 있는지 측정하고자 한다. 지역아동센터 2021년 지원사업에서 서비스영역 (1)프로그램 서비스는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2)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 지역사회프로그램 제시 되어 있으며, 특화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요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프로그램 중 문화프로그램이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이 사회적지지로 인하여 자기효능감에 촉진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자기효능감은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문화프로그램은 체험활동과 참여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람, 견학활동 캠프와 여행활동, 공연관람, 행사체험활동(문화와 체육)등 세부 프로그램을 서비스로 제공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설정되고, 진로인식 및 진로발달이 종속변수로 설정되었으며, 사회적지지로 조절변수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설정되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과 학교과정, 가족과 소득수준 그리고 문화 활동 참여기간과 문화프로그램 참여 횟수는 배제되었다.

3.2.1 문화프로그램 몰입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에 참여한 취약계층가정 아동·청소년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3]. 문화프로그램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몰입과정을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척도(Learning Flow Scale)로 사용하였다. 리커트(likert)를 사용해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자신이 생각한 문항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체크 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3.2.2 진로인식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진로인식의 측정도구는 아동·청소년의 진로인식과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1992) 자료 중에서 진로교육 자료집의 문항들을 참고 해 최현주[23]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 내용을 이용경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용경[24]에서 사용 된 진로인식검사 문항 중 13문항을 Likert 5단계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자신이 생각한 문항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체크 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9이었다.

3.2.3 진로발달

진로발달 측정 도구로 개발한 초등학교생용 진로발달 검사 도구를 참고로 이용경이 자아인식 10문항, 학업 및 직업탐색 13문항, 진로계획 18문항으로 총 4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용경[24]이 사용한 검사지를 연구 목적에 맞게 14문항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로 Likert 5단계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자신이 생각한 문항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체크 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이었다.

3.2.4 자기효능감

문화프로그램 몰입을 매개하는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본 연구는 성별과 학교과정, 가족과 소득수준 그리고 문화 활동, 참여기간과 프로그램 횟수를 배제하고 자기효능감이 문화프로그램 몰입에 매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지,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영향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Shere의 「General Self Efficacy Scale」을 토대로 자기효능감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류정아[3] 연구에 사용한 검사지를 연구 목적에 맞게 24문항 중 1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로 Likert 5단계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자신이 생각한 문항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체크 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점수가 높다는 것은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3이었다.

3.2.5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만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생태환경에서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관심과 지지에 대한 지각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지지를 조절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Dubow와 Ullman이 연구한 사회적지지의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와 사회적지지 척도로 개발된 류정아[3]의 척도를 수정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5단계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자신이 생각한 문항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체크 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이었다.

3.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5.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Hayes, 2015)를 사용해 분석했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와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방법은 첫째,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연령 간 문화프로그램 몰입,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인식, 진로발달의 비교를 위해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의 문화프로그램 몰입,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인식, 진로발달 간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진로인식 및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통계적 유의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rapping)을 통해 실시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의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그 통계적 유의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rapping)을 실시했다.

4. 결과

4.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190명 아동·청소년의 성별(남, 여)과 연령(초, 중, 고) 간 문화프로그램 몰입,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을 비교 했다. 그 결

과 Table1과 같이 5가지 변인의 전체 평균은 문화프로그램 몰입 3.81, 자기효능감 3.15, 사회적지지 4.00, 진로인식 3.56, 진로발달 3.42였다. 문화프로그램 몰입과 사회적지지는 높은 편이었으나, 자기효능감은 보통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은 보통 수준과 높은 수준의 중간으로서 보통 보다 약간 높았다. 또한 성별과 연령 간 5가지 변인의 차이와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 Comparisons of 5 variables between group of sex and age

Variable	Sex		Age			Total	F (SxA)
	Boy	Girl	E	M	H		
	M(SD)	M(SD)	M(SD)	M(SD)	M(SD)		
1	3.77 (.14)	4.16 (.15)	3.73 (.06)	4.00 (.14)	4.17 (.28)	3.81 (.74)	.95
2	3.04 (.10)	3.11 (.11)	3.15 (.04)	3.15 (.09)	2.90 (.20)	3.15 (.52)	.34
3	4.00 (.11)	3.89 (.12)	3.95 (.04)	4.10 (.10)	3.80 (.22)	4.00 (.59)	2.00
4	3.31 (.13)	3.46 (.15)	3.59 (.06)	3.48 (.12)	3.07 (.27)	3.56 (.71)	.55
5	3.32 (.13)	3.23 (.14)	3.45 (.05)	3.30 (.12)	3.07 (.26)	3.42 (.68)	1.83

1=cultural program commitment, 2=self-efficacy, 3=social support, 4=career awareness, 5=career development, E=elementary school, M=middle school, H=high school

4.2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의 문화프로그램 몰입,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인식, 진로발달의 상관관계에 대한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Table 2에 문화프로그램 몰입은 자기효능감($r=.37, p<.01$), 사회적지지($r=.45, p<.01$), 진로인식($r=.50, p<.01$)과 진로발달($r=.51,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r=.45, p<.01$), 진로인식($r=.49, p<.01$)과 진로발달($r=.4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사회적지지는 진로인식($r=.50, p<.01$)과 진로발달($r=.52,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진로인식은 진로발달($r=.7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을 매개($B=.36, LLCI=.24, ULCI=.48$) 해서 진로인식에 영향을 주며,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B=.18, p<.01$) 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을 매개($B=.37,$

LLCI=.25, ULCI=.48) 해서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며,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B=.18, p<.01) 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correlation with 5 variables (N=190)

Variable	1	2	3	4	5
1	1				
2	.37**	1			
3	.45**	.45**	1		
4	.50**	.49**	.50**	1	
5	.51**	.44**	.52**	.78**	1
M	3.81	3.15	4.00	3.56	3.42
SD	.74	.52	.59	.71	.68

**p<.01
1=cultural program commitment, 2=self-efficacy, 3=social support, 4=career awareness, 5=career development

4.2.1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진로인식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번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5,000회를 지정하고 신뢰구간 95%로 설정했고, 문화프로그램 몰입과 사회적지지를 평균 중심화 하였다. Table 3, 4, 5, Fig. 1. 은 문화프로그램 몰입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여,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진로인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해서 진로인식에 영향을 주며,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을 사회적지지가 조절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문화프로그램 몰입활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인식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프로그램 몰입활동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고 그 결과 진로인식이 증가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지지를 많이 느낄수록 문화프로그램 몰입활동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촉진 된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moderated by social support between cultural program commitment and career awareness

variable	self-efficacy			
	B	S.E.	t	R ²
cultural program commitment	.17	.05	3.52**	.27
social support	.34	.06	5.56**	

variable	career awareness			
	B	S.E.	t	R ²
cultural program commitment	.36	.06	6.02**	.36
self-efficacy	.48	.08	5.64**	

**p<.01

Table 4.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ultural program commitment and career awareness (bootstrapping)

path	B	S.E.	LLCI	ULCI
cultural program commitment -> self-efficacy-> career awareness	.36	.06	.24	.48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cultural program commitment and self-efficacy(bootstrapping)

moderator	수준	B	S.E.	LLCI	ULCI
social support	-1SD	.03	.02	-.01	.08
	M	.08	.02	.03	.14
	+1SD	.14	.04	.0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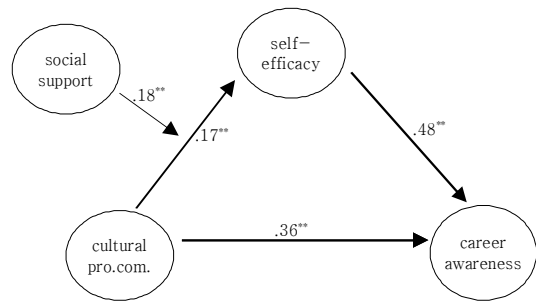


Fig. 1.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moderated by social support between cultural program commitment and career awareness

4.2.2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번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5,000회를 지정하고 신뢰구간 95%로 설정했고, 문화프로그램 몰입과 사회적지지를 평

균 중심화 하였다. Table 6, 7, 8, Fig. 2.에서 문화프로그램 몰입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여,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해서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며,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을 사회적지지가 조절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문화프로그램 몰입활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발달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프로그램 몰입활동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고 그 결과 진로발달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지지를 많이 느낄수록 문화프로그램 몰입활동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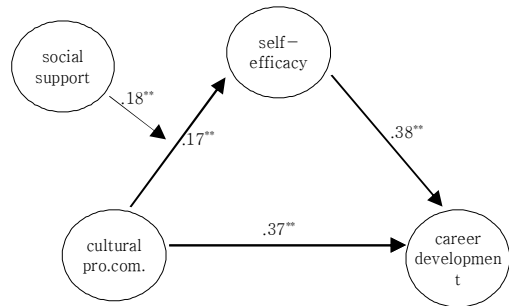


Fig. 2.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moderated by social support between cultural program commitment and career development

Table 6.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moderated by social support between cultural program commitment and career development

variable	self-efficacy				R ²
	B	S.E.	t		
cultural program commitment	.17	.05	3.52**	.27	
social support	.34	.06	5.56**		
cultural program commitment x social support	.18	.06	2.98**		
variable	career development				R ²
	B	S.E.	t		
cultural program commitment	.37	.05	6.30**	.33	
self-efficacy	.38	.08	4.52**		

Table 7.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ultural program commitment and career development (bootstrapping)

path	B	S.E.	LLCI	ULCI
cultural program commitment -> self-efficacy -> career development	.37	.05	.25	.48

Table 8.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cultural commitment and self-efficacy (bootstrapping)

moderator	수준	B	S.E.	LLCI	ULCI
social support	-1SD	.02	.02	-.01	.07
	M	.06	.02	.02	.11
	+1SD	.10	.03	.05	.18

5. 논의

본 연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8세 미만이 대상이다. 지역사회는 취약 계층가정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살핌과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 본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문화프로그램 몰입과 참여활동이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N시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과 중·고등학생 총 190명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했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첫째,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의 문화프로그램 몰입,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인식, 진로발달간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프로그램 몰입은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인식과 진로발달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 진로인식과 진로발달과 정적상관, 사회적지지는 진로인식과 진로발달과 정적상관이 있으며 문화프로그램의 질적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의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진로인식 및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통계적 유의성을 추가적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해서 진로인식에 영향을 주며,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경험할수록 진로인식이 증가하고,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고 그 결과로 진로발달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도 가능했다. 이러

한 결과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프로그램 체험활동 횟수를 증가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미래 자신의 일과 직업을 위한 진로인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진로발달을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정서조망능력이 낮으며 정서경험의 한계가 일반아동과 비교 해 볼 때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문화프로그램이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존중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와 아동·청소년의 정적발달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육활동이 많아지면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 정서지능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22]. 우리나라는 아동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반적인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과 대리경험이 언어의 습득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프로그램은 문화프로그램 몰입정도에 따라 체험활동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발달과정에 정적상관이 있다 하였다[18]. 본 연구의 검증 결과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며,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을 사회적지지가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문화프로그램 몰입활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발달이 증가하고,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사회적지지를 많이 느낄수록 문화프로그램 몰입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촉진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의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된 자기효능감을 검증한 결과 문화프로그램 몰입활동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고 그 결과 진로인식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지지를 많이 느낄수록 문화프로그램 몰입활동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촉진됨을 알 수 있었다.

문화프로그램 몰입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어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해서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며,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을 사회적지지가 조절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문화프로그램 몰입활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발달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가정보다 취약계층가정 아동·청소년은 충분한 보살핌과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학업성취와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이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면 일탈 행동에 빠지기 쉽다. 사회적 지지는, 목표를 설정하는 동기와 주어진 환경에서의 높은 효능감을 세워주며 목표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26]. 아동·청소년은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인식을 가져야 하며 직업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진로선택의 의미와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적 소양을 쌓아야 한다[27]. 이러한 결과들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들이 충분한 사회적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다양한 정책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자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소도시인 N시의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실시하였으나,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지원 문화프로그램을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문화프로그램의 몰입이 사회적 지지로 조절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로 인하여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받는 과정 가운데 매개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 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학교과정, 가족, 소득수준과 프로그램 활동 참여기간과 횟수를 배제하였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하여 심도 있게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프로그램 몰입이 종속변수인 진로인식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고받을 때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문화프로그램 체험활동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고 있는 반면 진로인식과 진로발달과의 관계에 따른 영향을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향후 우리사회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며 진로인식과 진로발달 단계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N. Kim. (2015). *Effectiveness of career coaching program 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to*

- middle school students in community child center.*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2] S. S. Kang. (2018). *The effects of the elementary career reading program on the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daejin university. Pocheon.
- [3] J. A. Ryoo. (2017). *The research on the flow, depression, and aggression of the poor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cultural activities at the community child cente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iency and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Cheonan.
- [4] K. H. Choi. (2013). *A study on the needs and satisfaction of the adolescent's program by the type of Community Child Center.*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ulsan university, Ulsan.
- [5] S. J. Lee. (2020).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youth in community children center: Based on super's theory of career development.*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Daegu.
- [6] J.S. B. Rhee. (2019). *Childhood emotional abuse experience and career search efficacy of college students,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eoul.
- [7] W. Winkley. (1996).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H. S. Shin. (2000). *Emotional disorder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eoul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8] K. McCarthy. (2002). *Building an understanding of the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unpublished proposal submitted by the RAND corporation to the wallace-reader's digest funds.*
- [9] J. I. Kim. (2018). *The effect of career education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Master's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Gwangju.
- [10] S. Bhatia. & S. Bhatia. (2007).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merican Family Physician, 75,* 73-80.
- [11] Y. G. Shin. (2019). *The effect of parent and teacher support for elementary students' career awareness.* Master's thesis. Major in career education &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Gwangju.
- [12] Y. J. Hwang. (2015). *Effects of experiential activity-centered career education program on the career awarenes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Daegu.
- [13] G. J. Lee. (2018).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velopment, academic achievement, self-efficacy, and creative personality of the upp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Major in the elementa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Cheongju.
- [14] J. S. Park. (2014). *Analysis on the experience of low-incom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career counseling program : Focusing career development, career barrier and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Gyeongin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 [15] S. R. Park. (2017). *The effect of child care program at local children care center after school on self-efficacy of children.*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polic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studies, Gachon.
- [16]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 [17] N. R. Crick. & K. A. Dodge.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18] P. E. Davis-Kean, L. R. Huesmann, Jager, J. Collins, W. A. Bates, J. E. & Lansford, J. E. (2009). Changes in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beliefs and behaviors across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9(5),* 1257-1269.
- [19] L. R. Huesmann. & N. G. Guerra. (1997).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408-419.
- [20]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21] I. J. Kim. (201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vocational traine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mediation effect of learning flow.*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glob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hung-Ang university, Seoul.
- [22] H. J. Kim. (2016).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upo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 traits and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Gwangju.
- [23] H. J. Choi. (2015). *The effects of a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awaren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s thesis. Major in counseling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psychotherapy hansei university, Gunpo.
- [24] Y. K. Lee. (2012).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career-development and learning attitud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I. Cheongju.

- [25] J. W. Hong. (2019). *Effects of an emotional intelligence-based music therapy program on the reduction of the academic stress and the improvement of school life adaptation of children in local children center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counseling the graduate of school pyeongtaek university gyeonggi-do, Pyeongtaek.
- [26] E. J. Jin. (2015).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health.*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mokwon university, Daejeon.
- [27] H. J. Choi. (2019). *The effects of activity-focused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esteem and career aware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Major in career education counsel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장 선 화(Sun-Hwa Jang)

[상호인]



- 2008년 8월 : 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 2011년 8월 : 전주대학교 상담 심리학 석사
- 2019년 2월 : 전주대학교 상담 심리학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상담심리, 아동복지, 사회복지, 정치

· E-Mail : ilovegod3927@hanmail.net